

S대학교에 시간강사를 나가게 된 연유로, 평소엔 거리풍경의 일부로만 무심히 보아 넘겼던 S대 스킴버스를 작년 가을부터 가끔 이용하게 되었다.

집에서 7, 8분만 걸어 나가면 차를 쉽게 탈 수 있어, 그런 학교엘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다. 그럴뿐 아니라, 관악산풍안으로 안겨드는 버스밖 풍경을 유유한 기분으로 구경하는 마음 또한 싱그럽다. 관악산 근처엔 아직 인적이 그래도 드문 탓일까? 한여름 칠팔월의 녹음이 웬지 지쳐보이지가 않는게 신기하다. 아니, 이 느낌은 S대 교정에 이곳저곳 펼쳐진 잔디가 질고 열은 초록색 농담의 대조미탓일까?

내가 타는 S대 통근차를 등교길에 잡아탈 때마다 느낀점이지만, 이미 탄 분들은 뒤편쪽으로 모두 몰려앉아있다. 귀로의 퇴근차엔 반드시 그런 풍경은 아니지만, 유독 등교차는 그랬다. 나는 이 점을 예사로이 본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차문 바로 옆 맨 첫자리에, 뒷사람에겐 일별도 주지 않고 덜씩 앉아버리고 하는 버릇이었다. 오늘도 그랬던 것이다.

그런데 새로 갈린 운전기사가 나더러 “교수이십니까?”하고 운전하는 자세인채 묻는다. 난 정직히 “시간강사예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교수님이 서가시기 때문에 야단들어 그렇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주십시오”한다.

나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이 말을 들었다. 그 진의를 언뜻 가릴수가 없어서였다. 잠시후 깨닫고 보니, 시간강사따윈 뒷자리에 앉아 달라, 앞자리엔 감히 앉을 수 없다는 말로 이해됐다. 이 작은 버스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나와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곤하는 조교신분의 한 청년이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서둘러 뒷좌석쪽으로 쭈욱 들어가 버리곤 하던 일이 생각났다. 앞자리 전임교수석, 뒷자리 조교와 사무직원들의 자리, 그렇게 삼팔선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만일 달리 내직장이라

도 없이 시간강사로 여기에만 메인 처지였다면 이 차안에서의 처신에 곤욕스러움을 겪어야 했을 듯하다.

다소 무안해진 기분을 달래려 차장밖으로 시선을 보낸다. 팔월 한 여름의 자연인 데도 아침이른 이 시각엔 활기가 넘치고 있다. 저 자연계에도 신분등급이 살아있는 것일까?

문득 작년가을 어느 퇴근길의 이 버스안에서의 장면이 떠오른다.

학교안 퇴근승차장에서 동행이 모두 올라타 그럭저럭 자리들이 다 매꿔졌을 때였다. 한 사무직

# 人間價值와 계급사회

李 貞 德

〈東國大師大교수·兒童學〉

원이 버스에 올라서더니, 대뜸 화난 커다란 목소리로 차안의 직원들을 나무랐다.

“빨리 일어서지들 못해! 교수님들이 앉으시게?!”

그러자 엉거주춤 엉덩이를 들고 이자리 저자리에서 사무직원들이 일어섰다. 저렇게 고향을 지를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통근 버스에서의 좌석전은 어떤 회의에까지 입길에 오르내린 안전이었던게 틀림없다. 이런일 말고도 대학사회에서, 무슨 기념식전에 사무직원들이 터억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느니 혹은 사무직원의 불합리가 학사행정 요소요소에서 심하느니 하는 말이 혼한 우리 사회다. 이른바 관료의 잔재가 영

똥스러이 남아,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뒤범벅이 되는 것이다. 평소 나도 이 점에 대해 가슴 답답해 하는 사람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날 버스를 얻어 타고 있었던 국외자인 '시간강사' 나는 이 장면이 귀로 내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한사람의 일생의 전개라는 것이 많은 경우 기득의 조건에 지배를 받게 된다. 능력은 비슷비슷한데, 어떤 기회를 포착할 힘이 지원되지 않아 그의 길이 빠듯 어긋나게 되고, 그 균열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점 더 벌어진다.



옛그제 고등학교때 친구가 오랜만에 집엘 다녀갔었다. 중학교 1학년때부터 6년간 내내 수석을 다투던 사이. 그와 나는 나란히 사대에 합격했었다. 시골에서 사범학교를 다녔던 우리들로서는 독학이나 다름없는 대학관문이 무척이나 힘겨운 것이었다. 내겐 그당시 학자금을 대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으나 그에겐 그런 부모가 안계셨다. 능력도 많고 셈도 많은 그녀가 서울대의 입학울 포기하기까지 겪었을 아픔이 종종 내게 상기될 때마다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되곤 한다.

그녀는 근 이십오년동안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성대를 버려, 어제밤에도 기관지계통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수

가 많은 아동들 틈에서 성대를 무리하게 쓴 그녀의 목소리가 탄사람처럼 굵고 탁성으로 가라앉아, 학교때의 가늘던 음색을 찾아볼 길 없는 게 안타까웠다. 나는 다시 개인의 일생에 작용하는 「운」, 특히 항간에서 말하는 「부모복」이란 것에 대해 절실히 느꼈다.

거기 그 사무직원들에게도 기회만 주어졌던들 교수직에 오르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순 없다. 아마도 인간 사회의 신분상의 다양성은 영원히 불가피하리라.

그러나 출퇴근의 버스안에서까지 그토록 신분상의 경계선이 확인해야 하는 것일까? 나이적은 사람으로서 연장자에게 혹은 사무직원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자리양보를 교수에게 할 순 없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흐르는 사이 차는 개나리아파트 앞에 당도했다. 둘러보니 차안의 좌석은 삼분의 일쯤이 채워져 있었고 「교수」 승객이 타지 않은 버스의 절반은 모두 빈의자들이었다.

이때 어느때처럼 설흔을 갖넘은 한 여직원이 한쪽다릴 몸씨 절며 올라오더니 내의자걸 빈자리에 앉는다. 지난번엔 버스전면의 불룩튀어나온 본넬에 몸을 부리듯 털썩 앉던 여자다. 그녀에게 불편한 몸짓을 보이며 뒷자리까지 가는 것이 고역인 듯 했다.

사당동근처에서 한 젊은 남자가 가방을 들고 올라 타자 내 걸자리의 그녀는 내 만류도 뿌리친 채 쫓기듯 일어서 뒷자리권으로가 차손잡이에 선 채 매달렸고, 그녀가 일어난 내 옆자리에 그 젊고 건강한 남자가 앉는다. 필시 「교수」이리라.

다시한번 고갯 돌러 그녀의 불편한 모습을 확인한 순간 분노비슷한 감정이 치솟는다.

무신경한채 앉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남자 교수」 신분과 다리 불구이면서 서가야 하는 「여 사무직원」 신분의 사이.

이윽고 차가 싱그러운 캠퍼스에 닿는다. 여기 저기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잔디가 곱다.